

윤선우 “낮과 밤”은 좋은 작품...연기 성취감과 아쉬움 가득

사회부적응자·숨겨진 엔지니어 ‘문재웅’ 역

180도 다른 인물로 자유자재 변신 시청자 감탄

“금방 잊혀지는 작품이 아니라 후에도 많이 되돌려 보는 작품이 됐으면 한다. 모두 다 쉽고 친절한 작품만 있으면 그것도 매력 없지 않나.”

배우 윤선우는 20일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낮과 밤” 시청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좋은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종영한 tvN 월화극 ‘낮과 밤’에서 강박증, 결벽증을 가진 인터넷 세상에서만 사는 전형적인 사회부적응자이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MODU의 숨겨진 엔지니어 ‘문재웅’으로 열연했다.

극이 진행되면서 초반부 문재웅 모습과 180도 다른 강렬한 악역인 그림자로 변화, 복잡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윤선우는 “사원섬섬이라는 말이 상투적이라 쓰고 싶지 않지만 이 단어만큼 한 작품을 끝내고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나 싶다”며 “연기적으로도 끝났다는 성취감과 ‘더 잘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

다”고 좋은 소감을 전했다.

그는 문재웅의 매력에 대해 “우선 개인의 서사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며 “과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현재 이 인물이 왜 이런 성격이나 행동을 갖게 됐는지 찾아내고 연결시키는 게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두 가지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 배우로서 이런 캐릭터를 맡을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연기하면서 참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림자와 문재웅, 두 캐릭터를 완성시키기 위해 심리적인 것부터 접근했다. “과거의 일들로 인해 어떠한 심리상태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한 심리상태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나 무의식적 제스처, 말투 같은 것들이 생길거라 생각했다.”

문재웅의 경우 “자기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림자는 외부로 공격성이 표출되는 성격”이라며 “시선이 불안정하거나 입술을 물어뜯거나 말을 더듬는 등 외부의 문제를 본인 안으로

갖고 왔다”고 해석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청자 반응으로는 “문재웅이 장용식(장혁진 분)에 맞다가 손을 막아내고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좋아해주셨다”며 “순진했던 문재웅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눈빛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다”고 전했다.

화제의 드라마였던 ‘스토브리그’ 백영수에 이어 이번에도 ‘결핍’이 있는 역할이었다. 그는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달랐다. ‘스토브리그’는 형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을 많이 했다”며 “신체적으로도 따로 준비했다. 하반신 마비인 분들이 휠체어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휠체어에서 일반 의자로 어떻게 옮겨 앉는지 영상을 보면서 연습했다”고 밝혔다.

같은 소속사 식구이기도 한 남궁민과 연달아 호흡을 맞췄다. 그는 “남궁민 선배는 역시나 연기를 너무 잘한다. 현장에서 아우라가 느껴진다”며 “연기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치켜세웠다.

함께 자주 등장한 이청아에 대해서는 “정말 배려심이 넘치는 배우다. 항상 주변을 챙기고 편안하게 만든다”며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선한 사람인 것 같다. 끝나고 나서도 많이 챙겨줘서 고맙다고 연락했다”고

했다.

2003년 EBS ‘환경전사 젠타포스’를 데뷔한 18년차 배우다. 그는 “처음에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그렇게 재미를 붙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회상했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5년 동안 일이 없었다. 그때 연기를 그만두려 했다. 그렇게 회사와 정리를 했는데 정리 이틀 뒤 전에 오디션을 봤었던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다. “그때 그 캐스팅이 없었으면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는 “아마 연출가가 됐었을 것이다. 연극할 때 연극 연출을 했었다”고 말했다.

예능에도 출연해보고 싶다고 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잘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지만 나 혼자 산다” 같은 관찰 예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요리에 취미가 있고 하고, 제가 키우는 ‘사과’라는 고양이가 귀엽다. 사과만 나와도 힐링될 것이다.”

앞으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다는 바람이다. “지난해는 분에 넘치게 많은 사랑을 받은 해였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겠다. 올해는 소파의 해인데, 제가 소파다.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다.”



넷플릭스, 전세계 가입자 2억명 돌파...‘스위트홈’ 선전

‘스위트홈’ 세계 2200만 가구 시청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전세계 가입자가 지난해 2억명을 넘어섰다.

넷플릭스는 19일(현지시간) 작년 말 현재 가입자 수가 2억3700만명으로, 4분기 중에만 850만명 늘어났다고 이날 밝혔다.

넷플릭스의 성장은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APAC(아시아 태평양)이 이끌었다.

APAC의 경우 지난 4분기 동안 930만개의 유료 구독 가구 순증을 이끌어 내며 1490만명 증가한 EMEA에 이어 넷플릭스의 성장을 이끄는 두 번째로 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이 넷플릭스의 성장을 이끄는 두 번째로 큰 지역으로 나타난 데 대해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를 그 배경으로 꼽았다.

넷플릭스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콘텐츠에 약 77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콘텐츠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인인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Ltd’를 설립해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고 투자 역시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

올해 초에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위한 장기적인 제작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의 콘텐츠 스튜디오와 다년간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넷플릭스는 특히 지난해 12월 선보인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의 선전을 강조했다.

이 작품은 한국형 크리처극으로 호평받으며 작품 공개 이후 첫 4주 동안 전 세계 2200만 유료 구독 가구가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위트홈’은 ‘아리스 인 보더랜드’(1800만가구), ‘셀레나’(2500만가구), ‘오늘도 크리스마스’(2600만가구) 등 넷플릭스가 같은 시기에 공개한 로컬 오리지널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 동남아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콘텐츠 총괄 VP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스위트홈’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이야기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 매우 감사하다”며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들과 함께 더욱 즐거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트레저,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5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

그들 ‘트레저’의 ‘더 퍼스트 스텝 (THE FIRST STEP)’ 시리즈 앨범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했다. 이는 데뷔 5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다.

20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레저 정규 1집 ‘더 퍼스트 스텝 : 트레저 이펙트(THE FIRST STEP : TREASURE EFFECT)’의 출고 수량은 전날까지 28만1845장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음반이 정식 출시된지 일주일 만에 세운 자체 최고 기록이다. 앞서 트레저가 연말에 발표한 3장의 싱글 앨범은 각각 23만~25만여장이 판매됐다.

이로써 트레저는 이번 정규 1집까

지 더해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달성했다.

지난해 8월7일 데뷔한 트레저의 인기는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졌다.

실제 앨범이 판매된 국가별 분포를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6%를 차지해 전체 시장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보였다. 트레저 12명 멤버 중 4명의 일본 출신 멤버가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동남아 국가에서 20%, 중국에서 15%, 유럽에서 8%, 미주 지역에서 3%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트레저는 데뷔한 지 반 년이 채 되지 않은 신인이지만, YG의 초고속·초집중 전략으로 매년 다른 분위기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여왔다. 데뷔



곡 ‘보이(BOY)’부터 ‘사랑해(I LOVE YOU)’, ‘음(MMM)’에 이어 ‘마이 트레저(MY TREASUR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다.

윤종신, 정준일과 세 번째 호흡...‘잘했어요’ 내일 발매

‘리페어’ 프로젝트의 시즌2

가수 윤종신의 월간 음악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 1월호 ‘잘했어요’가 22일 발매된다.

20일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월간 윤종신’의 올해 첫 주자로 정준일이 나선다.

윤종신과 정준일은 지난 2011년 6월호 ‘말꼬리’와 2014년 10월호 ‘고요’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올해 ‘월간 윤종신’은 기존에 발표됐던 곡을 새로운 편곡으로 다시 선보

이는 ‘리페어’ 프로젝트로 꾸며진다. 2013년에 진행돼 큰 사랑을 받았던 ‘리페어’ 프로젝트의 시즌2인 셈이다.

윤종신은 ‘리페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정준일을 가장 먼저 떠올렸고, 선곡 단계부터 정준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정준일은 지난 17일 ‘월간 윤종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잘했어요”가 수록된 윤종신 8집 ‘헤어질 연인들을 위한 지침서’ 앨범을 통으로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잘했어요’는 처음부터

흡입력이 있었던 것 같다”며 “노래가 뒤로 갈수록 펼쳐지는 분위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악을 좋아했다. 에둘러 말하지 않는 솔직한 가사가 좋았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윤종신은 “제가 부른 게 사실적이려면 정준일 버전의 ‘잘했어요’는 우아하다”며 “이번 기회에 ‘잘했어요’가 준일의 노래가 되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 준일의 리페어 버전이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JYP 떠나는 갯세븐 “색다르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멤버들 SNS에 손편지 올려

그룹 ‘갯세븐’이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며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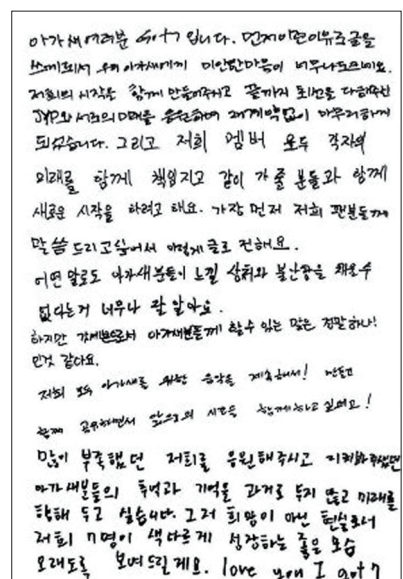
‘갯세븐’은 지난 19일 멤버들의 SNS에 손편지를 올리고 “먼저 이런 이유로 글을 쓰게 돼서 우리 아가새(팬클럽)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며 “저희의 시작을 함께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JYP와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재계약 없이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멤버 모두 각자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같이 가줄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며 “가장 먼저 저희 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로 전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떤 말로도 아가새 분들이

느릴 상처와 불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안다”며 “하지만 갯세븐으로서 아가새 분들께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하나인 것 같다. 저희 모두 아가새를 위한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고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했던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셨던 아가새 분들의 추억과 기억을 과거로 두지 않고 미래를 향해 두고 싶다”며 “그저 희망이 아닌 현실로서 저희 7명이 색다르게 성장하는 좋은 모습 오래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갯세븐은 지난 2014년 데뷔 이후 2PM을 잇는 JYP의 간판 보이그룹으로 활약해왔다. ‘나가 하면’, ‘하드캐리’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지난해 11월 정규 4집 ‘브리스 오브 러브 : 라스트 피스(Breath of Love : Last Piece)’



를 발매했고, JYP에서 낸 마지막 앨범이다. 재계약 불발로 멤버들은 각자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실상 개인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휘재, ‘아내의 맛’ 방송에서 층간소음 논란 사과

MC 이휘재도 최근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사과했다.

이휘재는 1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132회에서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기 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주의했다”며 “실수한 게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에게) 잘 사과하고 항상 연락하기로 하면서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휘재의 사과에 박명수도 “요즘 개인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이 집에 있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집에만 있다보니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며 “(이웃들과) 이웃끼리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견해를 덧붙였다.

앞서 11일 한 이웃이 이휘재 아내 문정원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아이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제발 매트라도 깔고 뛰게 하라”며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지만 해야 하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후 문정원이 해당 댓글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며 13일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는 우리 부주의가 맞다”며 “이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주민을 찾아 사과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해결책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